

청소년 위해 출판사가 할 일

박시교

시인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좋은 책'을 50여권쯤 선정하고 책읽기를 권장하는 것은 지극히 의례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담당 선생님의 따라서는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쓰게 하는 등 보다 적극성을 띠기도 했으나 이제까지의 교육 풍토로 보아서는 책읽기는 공부가 아닌, 심지어는 공부에 되려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금은 책읽기는 물론이고 신문사설, 나아가서는 논리나 철학 쪽의 글을 읽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고 믿게까지 되었다.

이 모두가 새 대학입시제도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책읽기뿐만이 아니라, 국민학생들에게는 지금 글짓기 공부가 또 극성을 부리고, 글짓기만을 지도하는 학원이 곳곳에 문을 열고 있다는 소문이다.

10여년쯤 전인가 대학입시에 논술고사를 넣은 적이 있었다. 그때도 온통 나라 안이 글짓는 일로 야단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있다.

책을 읽고 거기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며 상상의 폭을 넓히는 것은 국민학생 때부터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공부이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스스로 글짓기를 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또한 일찍부터 해야 할 공부이다.

이런 기본 교육이 이제 와서야 대학입시 제도와 맞물려 새삼스럽게 그 시작의 움을 띄우게 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쓸쓸한 마음을 끝내 떨쳐버릴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평소 좋은 책 출판은 학교 못지않게 교육에 직접 봉사한다고 믿어왔다. 즉, 의식있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좋은 책을 계속해서 출판하는 일은 중·고등학교나 대학 등을 세워서 교육에 봉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굳게 믿고 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출판사가 '우리의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라고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출판도 사업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참고서 외의 읽을거리의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모두 외면함으로써,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빚어졌던 뒤튼린 교육풍토 못지않은 해악을 초래했던 것은 아닐까. 출판에는 영리보다 우선되어야 할 어떤 사명이 있음을 아예 무시했던 것은 아닐까.

입시제도가 바뀌고 그에 따른 출제 형태가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니까 마치 그것이 논리 시험인 것으로 착각하여 논리에 관한 책이 불티나듯 팔려나가고, 그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그런 류의 책 출판 또한 극성을 부린다 한다.

아무튼 어렵게 판을 벌린 '청소년들에게 책읽기를 권하는 사회' 풍토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한다. 특히 읽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위치에 있는 출판사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할 것이다.

이제 마음놓고 교양서적을 읽는 중고생, 곁들여서 글짓기를 즐겨하는 학생들을 위해 출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모든 공부는 책읽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새삼 다짐할 필요가 있다.

뉴스	2	출판인쇄사 망라한 책문화 특별전·외
연재기획	4	왕조실록 태백산본 보존된 현대의 史庫 책의 해에 찾아가본 책의 명소 ① - 정부기록보존소
표지	6	장서표의 역사와 그 활용방안 — 최석태 유럽문화권서 15세기경 발생한 애서정신의 상징
얼굴	7	장서표전시회 연 애서가클럽 여승구회장
초점	8	'하나이면서 여럿'인 성서번역의 역사 — 이권우 개신교단의 '새 번역' 논란을 계기로 되돌아본다
서평	9	이상신 「서양사학사」 — 송상용 이수훈 「세계체제론」 — 김성연
	10	서규환 「현대성의 정치적 상상력」 — 김종업
	11	이진우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 강영안 김문수 「그 세월의 뒤」 — 이종환
	12	김영현 「꽃사랑」 — 최인자
출판화제	14	일본인에게 한국은 과연 무엇인가 「추한 한국인」 등 일본인이 쓴 한국·한국인론
	16	전래민담, 성인용 교양도서로 출간된다 선인들 삶의 지혜 현대적 재해석
이슈	17	과학과 윤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인간복제 가능성 둘러싼 최근논의 과학의 윤리성 부각
리뷰	18	'서편제신드롬'으로 서점가도 판소리열풍 소리꾼 삶 다룬 소설 비롯해 각종 연구서 출간도 줄이어
이 책 그 사람	20	「8시 91분」 퍼낸 이신우씨 「한국의 미 - 선택형」 낸 최성자씨
	21	「부하린 : 혁명과 반혁명의 사이」 낸 김남국씨 「시인의 열정」 낸 원종숙씨
추모기	22	“일찍 호학하다 서사에 몸을 담고” — 최덕교 출판계에 큰 자취 남긴 황중수선생을 추모합니다
세계의 책	24	발트하임의 나찌 부역혐의 파헤친다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